

책머리에

2018년은 역사에 어떤 해로 기록될까? 올해도 다른 해처럼 다사다난했다. 이미 작년에 구속된 박근혜에 이어 3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 수감된 지 거의 사반세기 만에 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방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를 30년 넘게 떠들다가 재권위주의화의 길목에서 촛불 봉기로 간신히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 민주주의의가 그리 깊게 뿌리내렸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1987년 6월항쟁 30주년이었던 작년이 글자 그대로 기념일에 그칠 뻔했다는 아찔한 느낌도 든다. 다른 한편 보다 긍정적인 면을 꼽자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해였다고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4·27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조성된 위기 국면을 일

거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이제야 지나간 분단시대를 지나 평화공존을 통한 탈분단시대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반전의 밑바탕에는 2016, 2017년에 걸친 촛불 봉기와 정권 교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바야흐로 남한 내부의 국가와 시민사회 권력 교체가 남북관계 변화를 추동하고, 그 힘이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 변화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갈 길은 멀고 길은 험하다. 그렇지만 한국 시민의 민주 역량으로 앞길에 도사린 위험과 도전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호에는 두 주제의 특집을 싣는다. 특집 I은 “한국 민주주의의 동학: 기원에서 현재까지”이다. 김정인은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에서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는 외삽론을 비판하고 19세기 이래 인민 주도의 저항운동 문화로 축적된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만민평등, 저항 운동, 집단민주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을 형성하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신진욱은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의 진자운동, 1987-2017: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동시성을 중심으로」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손 문제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와 더불어 심화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의 재권위주의화를 저지하고 1987년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어적 항쟁으로서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이상을 표출했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

는다. 그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자 2000년대 후반 이후 재권위주의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서 미래에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금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집 II는 “원폭, 기억, 그리고 재현”이다. 오은정은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에서 먼저 1950~1960년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을 짚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운동에 참여한 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인물들의 체험과 반성의 사유라는 미시적 차원과, 일본의 피폭자 운동과 유일피폭국 담론의 양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차하여 살피기 위함이다. 둘째, 1970~1980년대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한반도의 정치 질서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을 한계 지운 안보와 반공담론 등의 정치사회적 제약과 이로 인해 생겨난 운동의 방식과 대외 교류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주요 성과가 된 소송 중심의 수첩 재판의 성격과 그것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연대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했다. 이형선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 문학: 김옥숙, 『흉터의 꽃』(2017)」을 통해 한국의 ‘원폭 문학’으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래서 한국

인 원폭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장편소설 『흉터의 꽃』이 출간되었다. 이 소설이 간행된 시기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달이기도 했다. 원폭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되돌아본 저자는 “한국은 일본에 이어 피폭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면 서도 원폭 피해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원폭 피해라면 오롯이 일본을 떠올릴 뿐이다. 그래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밀봉해버린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결박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은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진 단층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또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무심하다”라고 역설했다.

일반논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진옥은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 촛불혁명 이후 젠더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모색」에서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이중적 긴장이 본질적으로 “정치” 또는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역설적 본질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개별적 개념화를 통해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의 교집합을 탐색하고 그를 통해 공식적이고 상위 수준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 정치와 비공식적이고 하위 수준의 정치 활동에 역점을 두는 페미니즘 정치 사이의 연결점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전방위적인 사회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젠더

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건설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권유미·임유진은 「제도화된 청년 활동과 지역공동체 민주주의의 가능성: 서울시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에서의 민주적 수행성 정치의 전망」에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를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영토로서 등장하는 ‘공동체적인 것’과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경험하는 ‘청년’이 결합하여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혁신청년활동가’가 공동체적인 통치기술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된 주체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실제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활동하여 관찰한 결과 및 동일한 조건에 놓인 여타 활동가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실제 활동의 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적 갈등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들이 해당 제도 내에서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수행적 모순’이 청년이라는 육체를 관통하는 공동체적 통치기술에 저항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내의 정치적 가능성이자, 동시에 공동체 외부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수행성 정치’의 전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원경은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일본 사회운동 사례와 그 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의 활동을 중심으로」에서 2015년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제·개정예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한 ‘SEALDs’이 인터넷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조사하고, 이와 같은 활동의 의의를 고찰했다. SEALDs는 조직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30여 명의 멤버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LINE 메신저 등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집회 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전파시킬 수 있어서 네트워크를 급속히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장훈교·서영표는 「제주 제2공항과 민주주의 그리고 기반시설 공동관리자원의 가능성」에서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다원적 기능들의 이질적인 복합체로 존재하는 혼합체이고, 그 안엔 동료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동 조정의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적합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공동관리자원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공항을 기반시설 공동관리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공항의 공급과 계획 및 운영 일반에 대한 동료시민의 민주적 개입 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해정은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이들이 생애 전 과정에서 경험한 고통이 사회적 고통임을 증명한다. 고통은 외상증후로도 발현되어 일상생활의 영위와 가정적·사회적 관계 구축, 개인의 존엄 회복에 큰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청산과 정치적 책임을 통한 사회적 치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영의는 「기억의 재현과 미학의 문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외롭고 높고 쓸쓸한〉의 경우」에서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시대의 증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기억이 미래에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후세의 문화 기억으로 번역·보존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지금은 사실의 재현 그 자체보다는 정신의 계승

을 위해 어떠한 미학적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주환은 「빈곤, 사회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 아렌트와 동글로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인 것의 정치의 난점들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망」에서 사회7적인 것의 정치를 우리의 사회적 삶의 세계를 정치공학이나 통치의 체계 논리로 조직하려는 힘과 도덕·규범의 연대의 논리로 조직하려는 힘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볼 때, 민주적 사회 재조직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호의 회고록은 조성우 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이 「민주청년협의회와 이른바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대해 기고해주었다. 1979년 10·26에서 12·12로 가는 과정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평가받지 못했던 사건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회고한 귀중한 사료이다.

5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장면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상대로 연설한 사건이다.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연설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그리고 끝없는 대화이다. 다행히 우리는 통역도 필요 없다. ~~다~~

2018년 12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일준 씀